

■ 페루 대선, 좌파의 승리?

강 정 원

6월 5일 치른 페루 대통령 결선 투표는 대선 재수생 오얀타 우말라의 승리로 돌아갔다. 개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국내 포털사이트에는 “중남미는 ‘중도 좌파’ 세상” (『서울경제』, 6월 6일자)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올랐고, 당선이 확정되자 CNN과 BBC 등 외신들은 우말라의 승리와 페루 주가지수 폭락을 주요 기사로 내보내며 새로운 좌파 정권의 탄생이 투자자에게 미칠 손익 계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결선 후보였던 게이코 후지모리(이하 게이코)와의 접전 끝에 불과 3퍼센트의 표차로 확정된 우말라의 승리를 페루 민주주의의 성과로 호평하면서도 이들 언론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우말라는 과연 정치인?

우파 진영의 논객 역할을 자청해 오던 바르가스 요사가 대선을 며칠 앞두고 우말라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요사는 불과 5년 전 대선에서 우말라를 독재자라고 비난하던 자신의 독설을 망각하기라도 한 걸까? 게이코와 우말라를 “에이즈와 만성암”으로 비유하며 후자를 지지한다는 요사의 설명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그렇지만 요사의 궁색한 변명은 우말라를 선택한 일부 유권자들의 심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페루의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선거는 우말라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게이코를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투표였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이러한 설명은 이번 선거를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2006년 대선 당시 우말라가 정치 모델로 삼음) 대 후지모리 전 대통령(게이코의 아버지이자 현재 부정부패와 인권유린 등의 혐의로 25년형을 받고 수감중)의 망령들 간의 선거로 해석하는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아무리 선거란 최선이 아닌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장이라는 말로 위로한다고 하더라도 이쯤

되면 우말라가 대변하는 것은 단지 환영에 불과하다는 의미인지 석연치 않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말라와 후지모리를 대립 선상에 놓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럼에도 그를 차베스 신봉자나 정치 초보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우말라가 가르시아 현 대통령과 대적하며 45퍼센트 이상의 득표를 거뒀음을 고려할 때 부당한 처사다. 또한 이번 결선에서도 페루의 19개 행정 구역 가운데 수도 리마와 카야오 및 북부 4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이 우말라를 선택했으며, 쿠스코, 푸노, 마드레데디오스와 같은 압도적인 원주민 인구로 구성된 남부 내륙 지역에서 70~80퍼센트에 육박하는 높은 득표를 거뒀다는 것은 우말라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두는 확고하고 포괄적인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음을 대변한다. 그럼에도 우말라의 정치적·종족적·계급적 기반은 여전히 모호해 보인다. 우말라를 케추아 어 사용 원주민 태생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2000년 형제지간인 안타우로 우말라와 후지모리에 대항하는 쿠데타를 감행하며 내세운 에트노카세리스모(etnocacerismo)는 최근의 다문화주의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급진적인 민족주의를 담고 있다. 그 외에도 군장교로 복무하던 당시의 인권유린 혐의와 동성애자를 모두 총살해야 한다던 우말라 어머니의 발언 등은 원주민을 포함하는 페루 소외 계층의 대변자로서의 우말라의 진정성에 심각한 오점을 남게 한 요소들이다. 설상가상으로 좌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대신 주변부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정체성을 포기하는 대신 우말라와 연합해 대중적 지지를 얻어낼 것인지를 문제로 집중된 페루 좌파 진영의 논쟁을 떠올린다면, 우말라를 좌파 진영의 대변자로 보는 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실제로 우말라는 민족주의 또는 사회적 포용(inclusion) 등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들로 자신의 정책기조를 표명하며 페루 원주민 운동이나 좌파 운동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우말라의 이러한 모호한 정체성은 이번 대선에서 차베스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브라질 룰라의 선례를 따르겠다며 입장을 선회하는 과정에서 더욱 극대화됐다. 이와 더불어 앞서 말한 그의 기이한 가족사, 인권유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혐의, 에트노카세리스모라는 엉성하면서도 극단적인 민족주의, 차베스와의 유착 관계 등에 관한 의혹은 그를 지칭하며 사용되는 카멜레온, 매브릭(괴짜, 독불장군 등의 뜻) 등의 수식어들에 반영돼 있다.

우말라, 차악이 아닌 최선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우말라가 자신을 향한 의혹을 떨쳐 내고 민주적인 체제하에서 소위 ‘인간의 얼굴을 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위해, 아니 적어도 그럴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 주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선 대선을 앞둔 1~2년간의 지지율 추이를 먼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주요 기관에서 실시한 유권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우말라의 경우 대선 1차전이 있기 불과 한 달 전까지도 15퍼센트 이하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전체 응답자의 70퍼센트 가량이 대선 1차 후보자 게이코, 톨레도(전 페루 대통령), 카스타네다(전 리마 시장)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1차 선거가 시작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톨레도와 카스타네다의 지지율이 또 다른 보수파 후보 쿠친스키(전 페루 총리)에게 분산된 반면, 우말라의 지지율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말라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권자의 절대 다수가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표들이 분산되면서 우말라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사실은 우말라의 당선이 그의 강력한 지도력이나 카리스마에 근거하기보다는 보수 진영의 전략이 실패함에 따른 결과였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들이 형성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연합에 이르지 못하면서 후지모리의 망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이코가 보수 진영을 대변하게 됐다. 결국 유권자들은 후지모리의 독재라는 기억과 타협하면서까지 보수 진영의 트레이드마크인 체제 안정과 경제 성장을 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측 불가능하지만 고집은 한 풀 꺾인 듯한 우말라를 선택해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길들일 것인지 선택해야 했던 것이다.

우말라가 마침내 페루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의 이러한 상황을 살펴본다면 우말라의 당선을 페루 좌파의 승리로 간주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우말라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고려한다면 우말라가 차베스의 선례를 따를 것인가 하는 물음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설령 어부지리로 승리를 거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말라의 대선 승리를 통해 페루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걸어 볼 여지는 있다. 먼저 이번의 페루 대선은 외국 자본에 의한 광물자원 개발로 얻은 가파른 경제 성장 모델의 문제점을 페루 국민들이 절실히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부의 분배

와 재투자 없는 붐 경제는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더 나아가서 민주적 절차와 체제를 파괴하는 후지모리식 독재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말라가 공언하는 페루화된 룰라식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체제적 안정과 사회적 포용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원칙 역시 그 실현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페루 국민은 민주주의와 인간적 자본주의에 대해 손들어 줬으며, 이제는 우말라가 변화하고 성장할 차례다. 우말라의 집권이 페루가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적인 성장 모델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꿈꾸어 본다.

강정원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